

동아일보 '97. 4. 28.

환경오염-밀렵탓 지정만해놓고 보호 뒷전

41종 중 황새 등 4종 멸종

문화재로 특별보호할 가치가 있어 정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동물의 상당수가 멸종위기에 처해 있거나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이는 무절제한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과 서식지의 파괴, 밀렵의 난무 등이 원인으로 정부가 올해를 「문화유산의 해」로 지정한 뜻을 무색케 한다.

현재 문화체육부 산하 문화재위원회가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동물은 포유류, 조류, 어류, 곤충 등 모두 41종.

이중 따오기, 황새, 먹황새, 저어새 등 4종은 이미 멸종됐고 하늘다람쥐, 반달가슴곰, 사향노루, 산양 등 12종은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 나머지 25종도 진도개, 삿살개, 제주마 등 일부를 제외하면 그 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희귀종으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체육부 문화재관리국 관계자는 『문체부에서 기념물로 지정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보호를 하도록 돼 있다』며 『그러나 정부가 개발우선의 경제정책을 쓰다보니 지정하기에만 급급했지 제대로 보호를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 '97. 4. 23

산림청 보존대책 마련

광릉 삼림욕장 6월부터 폐쇄

산림청은 22일 자연훼손이 심각해지고 있는 광릉숲

보존을 위해 광릉수목원의 역할을 휴양·관광지 성격에서 자연학습공간으로 기능을 축소해 운영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위한 '광릉숲 보존 종합대책 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안에 따르면 산림청은 현재 월·화요일에 휴장하는 광릉 수목원을 6월초부터 주중에만 개방하고 토·일요일 등 주말에는 일반공개를 하지 않기로 했다.

또 입장객 수를 줄이기 위해 예약을 통해서만 입장객을 받는 한편 교육학습 및 연구목적으로만 광릉수목원을 개방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이와 함께 현재 광릉수목원 내 4개 구간에 총 20km 길이로 개설된 삼림욕장을 폐쇄하고 수목원내에 조성된 야생동물원(총 14개동)도 다른 지역으로 이전키로 방침을 정했다.

산림청은 하루 차량통행량이 4천여대나 돼 자연훼손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314번 광릉숲 관동 도로를 폐쇄하고 대신 건교부·해당 지자체 등과 협의해 우회도로 개설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수목원 주변의 임야나 준농림지 등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키 위해 반드시 필요할 경우 최대 국유화까지 할 수 있도록 농지법·문화재관리법·국토이용관리법·산림법 등의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이달말까지 건교부·환경부·남양주시·포천군 등 관련기관 및 자치단체와 주민·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최종 수렴한 뒤 5월초 광릉숲 보존 종합방안을 최종 확정,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중앙일보 97. 4. 26

전남 여천공단 주변거주 학생 23명

소변서 페놀 대량 검출

고려대 환경연구소 조사

전남 여천공단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일부 학생들의 소변에서 발암물질인 페놀이 검출돼 이에 대한 철저한 원인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고려대 환경의학연구소(소장 廉容泰)는 25일 여천공단 지역 주민들에 대한 건강조사 최종보고서를 통해 학생 23명의 소변에서 페놀이 50~1백ppm 농도로 검출됐다고 밝혔다. 조사팀은 조사대상인 9천1백49명 주민들의 소변 페놀농도는 1.3~9.7ppm인데 비해 일부 학생들에게서만 이같은 수치가 나타나 정확한 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기중에 포함된 페놀은 호흡을 통해 인체에 흡수돼 24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배출되고 대기중 페놀오염 농도와 소변중 페놀농도는 비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학계에는 소변 페놀농도가 3백ppm을 넘어서면 신장·간기능에 이상이 생기고 암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보고돼 있다.

국내 근로자들의 소변 중 페놀 참고치는 1백ppm이고 선진국들의 참고치는 50ppm이다. 이 참고치를 넘어서면 작업환경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벌이도록 되어 있다.

환경의학연구소는 환경부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이 지역 주민들에 대한 건강진단을 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조사만으론 결론을 내리기에 불충분해 추가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인공위성으로 24시간 보호 지리산 반달가슴곰

앞으로 인공위성을 통해 지리산 반달가슴곰을 24시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이와함께 몇마리밖에 남아있지 않은 지리산 반달가슴곰을 번식시킬 수 있는 대책도 마련된다.

산림청은 다음달부터 지리산 반달가슴곰에 전파발신기(GPS)를 부착, 「노아」인공위성을 통해 밀렵행위 등으로부터 보호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파발신기를 부착하면 곰의 위치와 행동권역, 활동유형, 주요서식지 등 여러 자료를 인공위성에서 송신받을 수 있다.

산림청은 앞으로 이들 자료를 통해 지리산 반달가슴곰 보호구역지정 및 보전계획을 수립해나가기로 했다.

또 반달가슴곰으로부터 혈액과 털, 조직 등 유전자물질을 추출해 DNA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내에서 인공사육 중인 8백49마리의 반달가슴곰과 중국에서 올 하반기 중에 들여올 예정인 장백산 반달가슴곰의 유전적 차이점을 규명하는 한편 유전학적 연구를 통해 반달가슴곰 종의 복원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달 섬진강에 산다

천연기념물 제330호로 지정된 희귀동물 수달이 섬진강 유역 일대에 서식하고 있는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환경부는 14일 수달 두마리가 섬진강 유역에서 생존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사진을 공개했다.

죽은 수달이 발견된 것은 지난해 9월까지 몇차례 있었으며 살아있는 수달은 지난 71년 오대산 월정사에서 발견된 이후 올들어 한국방송공사 촬영팀이 촬영에 성공했으나 환경부가 서식 사실을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달은 19세기말까지도 부산에서 평안북도에 걸쳐 우리나라 전역에서 비교적 흔하게 잡혀 목도리 등으로 많이 사용했으나 일제시대 및 한국동란을 거치면서 절종위기에 처해 세계적으로도 매우 희귀한 동물이 됐다.

환경부는 이번에 발견된 수달 두 마리가 부부인 것으로 보이며 새끼 등 3~4마리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섬진강 일대를 수달보호지역으로 지정해 특별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환경부는 수달의 생태를 위협하는 원인으로 이동통로를 단절하는 도로와 인공제방, 어로를 위한 그물등을 꼽고 정확한 서식 구역이 밝혀지는대로 이동통로 개설과 그물사용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환경부 鮮于榮俊자연정책과장은 『수달이 생존하고 있다는 흔적은 그동안 여러차례 발견됐으나 실제 살아있는 수달이 발견돼 멸종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번에 정부가 공식 확인했다』면서 『그동안 배설물 추적 결과 중금속 함유량이 높게 나타나는등 수달의 서식 환경이 매우 나빠지고 있어 매우 세심한 관리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연합)



환경신문고 하루평균 144건 접수

환경오염 신고제도인 「환경신문고」가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3월 환경신문고를 설치한 이후 지난 한해동안 접수한 환경오염고발은 모두 4만4천22건. 이는 하루평균 1백44건으로 신문고 설치 전보다 신고건수가 2.8배나 증가한 것이다.

고발 내용으로는 자동차 매연이 3만3천8백62건(77%)으로 가장 많았고 △폐기물 불법투기 3천6백31건(8.2%) △대기오염 9백84건(6.8%) △수질오염 1천6백20건(3.7%) △유독물 28건(0.1%) 순

이었다. 환경부는 이 가운데 위법행위가 적발된 3만3천7백43건(77%)에 대해 행정처분 또는 고발조치했다.

환경신문고는 대기 수질오염 쓰레기 불법투기 유독물 불법방치 등을 전화, 우편, 팩스, PC통신으로 신고를 받는 제도. 전화는 국번없이 128(일이 빨리)번, 팩스는 02-503-0128, PC통신에서는 하이텔 「GO ENV 128 환경신문고」, 천리안 「GO MOE 128 환경신문고」로 하면 된다.

〈金靜洙기자〉

